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말솜씨에 순종하는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2021년 9월 21일 (화)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대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06편 1절 인 도 자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 씀 나 눔 *뒷면참조 인 도 자

찬 송 좋으신 하나님 인 도 자

1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추석연휴기간 묵상할 말씀

9월 20일(월) 시편 23편

9월 21일(화) 고린도전서 13장

9월 22일(수) 에베소서 2장



말 씀 나 눔

추석을 맞아하여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추석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석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일 년 중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좋은 것이 참 많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만 우리에게 좋고 즐거울 뿐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실 뿐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선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인자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